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Middle-aged Adults' Mobile Information Behavior Focus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김 희 섭 (Heesop Kim)**

이 미 숙 (Misook Lee)***

서 지 웅 (Jiwoong Seo)****

목 차

- | | |
|-----------|------------|
| 1. 서 론 | 4. 분석 결과 |
| 2. 이론적 배경 | 5. 요약 및 결론 |
| 3. 연구 설계 | |

초 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및 읍·면 단위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중·장년층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직업유무를 채택하였고,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로는 크게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 모바일 이용시간, 모바일 이용수준,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모바일의 유용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터 중 191개의 유효한 데이터는 SPSS Ver. 21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그들의 학력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이들의 소득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뉴스'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활용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직업유무에 따라 '복지', '뉴스', '경제', '여가' 정보콘텐츠 활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들은 성별, 거주지역 그리고 건강상태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iddle-aged adults' mobile information behavior focused on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 achieve the aim of this study data were collected from 50 to 64 years old middle-aged adults who live in different size of cities and towns in Korea using self-designed questionnaire through online and offline survey. Gender, academic background, income level, size of residential zone, physical condition, and occupation were adopted a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ype of mobile contents use, hour of mobile use, ability of mobile use, persistency of mobile use, and usability of mobile were used as the mobile information behavior in this study. Total of 191 valid data were analysed using SPSS Ver. 21. The results of this empirical study revealed that there exist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me of their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e.g., academic backgrounds, income level, and occupation) and mobile information behaviors particularly in their contents use.

키워드: 중·장년층,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인구통계학적 차이분석

Middle-aged Adults, Mobile Information Behavior, Demographic Differences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3A2033394).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heesop@knu.ac.kr) (제1저자)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leems@knu.ac.kr) (공동저자)

****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Sir.G3oong@gmail.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5년 4월 27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5월 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2): 335-353,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2.335]

1. 서론

다양한 정보기기와 복합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 뉴미디어의 출현은 현대인의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동 중에 실시간으로 지구반대편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고 있는 경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며, 또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이용하려는 버스가 현재 어디쯤 오고 있는지, 다른 교통상황들은 어떤지 등의 정보를 버튼 하나면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기 및 뉴미디어의 사용과 확산을 통해 개인은 사회참여와 정보 및 지식습득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기존의 학습 및 소통, 그리고 사회참여 및 관계 형성 등을 수행하는 방식에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이원태,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 오주현 2011).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던 정보의 생산과 유통 등이 현재는 이동형 인터넷 기기를 표방하는 모바일을 통해 더욱 손쉽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난 모바일 기기들의 특성을 이용해 정보의 생산이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 기기들이 인간 삶의 편의성을 중점으로 개발되는데 방향이 맞춰짐에 따라 모바일 융합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모바일 기

기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이용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시장조사 기관인 Flurry Analytics의 보고(2015)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앱¹⁾의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76% 상승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종류별로 분석한 부분에서 보면 모바일 커머스(Mobile commerce, M-commerce)²⁾와 같은 쇼핑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영역이 2013년 대비 174% 상승했다.³⁾ 또 한국갤럽의 조사(2014)에 따르면 대표적인 모바일기기인 스마트폰의 경우 2014년 40대가 90%를 넘어섰으며, 50대가 80%, 60대가 37%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70~9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의 모바일 이용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10~40대와 50~60대 이상의 모바일 정보서비스 이용의 수준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교육수준이나 문화적 경험 등의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나라들의 총 인구 중 65세 인구가 약 8,700만 명(17.4%)으로 EU 전체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다(Eurostat 2014). 또한 현재 한국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이며, 앞으로 수년 내에 EU처럼 초고령 사회(Post-aged society)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⁴⁾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 가치관을 소유한 베이비부머(Baby-boomers)⁵⁾ 세대와 같은 중·

1)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줄임말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모바일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3)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OS와 안드로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평균이다.

4) UN에서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14% 미만이면 '고령화 사회', 14%~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5) 한국전쟁 후 출산율이 급증하였다가 산아제한 정책으로 둔화되기까지의 시점 즉, 1955년~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를 지칭하는 말로 2015년 현재 52~60세에 해당하는 연령대를 이야기한다.

장년층의 노인인구로의 유입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령층의 성향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 세대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새로운 문화나 사회적 변화에 있어 비교적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영금, 윤소영 2014). 또한 이들은 우리나라 현대사의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세대이며,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세대이며, 고령화 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 중의 하나로 정보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이 문제로 인해 세대 간 정보 및 소통의 단절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고령층 관련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고령층의 정보이용행태 및 인식의 변화와 개선 등의 방향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관련 사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령층의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하지만 앞으로 고령층에 유입될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기존의 고령층과는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의 정보이용에 대한 다양한 변화에도 이전 세대와는 다르게 반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이용 연구가 단순히 실태조사에만 그치는 수준이 아닌 개인의 특성

에 따른 정보이용행태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는 관련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그들의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모바일

2007년 미국의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까지 일반 이용자들에게 모바일은 그저 이동성을 가진 휴대폰이나 간단한 GPS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기기 정도로만 인식되어 왔다. 또한 모바일은 인터넷과 별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환경을 구축해왔기에 그 영역이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아이폰 출시를 기점으로 이른바 스마트폰 시장의 출현과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을 통해 모바일의 영역은 끊임없는 확장을 거듭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PC, 인터넷 등의 영역까지도 아우르는 형태로 진화하였다.

현재 모바일은 다양한 기기들과 흔히 앱으로 불리는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시장의 확장으로 인해 그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모바일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개발 및 발전되고 있는데, 먼저 기기 측면에서는 태블릿 PC, 스마트 폰 뿐 아니라 최근에는 손목시계나 안경의 형태를 가진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까지 포함되고 있다.⁶⁾ 그리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다양한 모바일

융합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즉, 어플리케이션들의 개발을 통해 모바일을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영역과 관련 시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Muller, Gove, Webb(2012)의 연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이용이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나고 있다고 밝혔고, Nylander, Lundquist, Brannstrom(2009)은 이용자가 모바일 인터넷에 가장 많이 접속하는 장소가 집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 Ray(2014)는 이용자들이 항상 모바일 기기를 지니고 있고,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 시장에서는 이미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으며, 모바일이 새로운 사업들을 이끌고 있다고 하였다. 이용자들은 모바일 기기와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쇼핑, 식사, 여행, 심지어 업무와도 연관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처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저장 및 융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김재생(2013)과 Moretz and Surti(2014)는 각각 여러 기능들이 모바일 기기에 합쳐져 결합되는 모바일 컨버전스를 연구했는데, 모바일 뱅킹서비스, 인터넷을 아우르는 모바일 검색서비스와 이를 돕는 브라우저를 탑재하는 브라우저 서비스, GPS를 이용한 위치기반 서비스, 환자와 의사간의 시간과 공간의 규제를 풀어주는 모바일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모바일 결제와 모바일을 이용한 음악 감상, 호환기간 무선 데이터 전송 및 모바일 광고 등과 같은 기능들에 대해 나열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바일 컨버전스를 통해서 이용자에게 보다 효과적인 소비

생활과 통합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였다.

또한 손정우 등(2013)은 연구를 통해 모바일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안하였으며, 특히 모바일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SNS 활동내역과 패턴을 분석한 온라인 데이터와 GPS를 통해 나타나는 오프라인 행동데이터를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나아가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모바일에서는 기기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있어 확장성, 융합성과 같은 다양한 장점과 발전가능성이 열려있다. 하지만 김재훈과 김형철(2009)의 연구에서 처럼 모바일 환경에서는 작은 화면으로 인해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화면에 표현할 수 없으며, Karen Church, Barry Smyth, Paul Cotter, Keith Bradley(2007)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바일에서의 정보 검색 시 사용하는 질의어가 일반 웹 검색에서 보다 짧고 함축적이며 이용자의 정확한 의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장·노년층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등의 단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웹을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변경하여 글자크기를 키우거나 메뉴의 상하관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하여 제공하는 등,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완화해 장점으로 변경시켜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도서관에서의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 분석에 대한 연구(정종기 2011; 김성진 2013),

6) 구글 클래스나 Vuzix, Metapro 등이 있다.

도서관 모바일 앱 접근성 평가에 대한 연구(장보성, 남영준 2014), 고령층의 모바일 정보행위 분석에 대한 연구(김희섭, 이미숙, 강보라 2014) 등 모바일 이용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용자 편의성에 중점을 맞춰 모바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2.2 연령에 따른 정보이용행태

과거에 정보이용은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수 있는 것들로 치부되어 왔다. 그것은 아마도 정보이용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도서관 등에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컴퓨터가 발명된 후 정보기와 자료의 발전을 통해 정보자료들이 전자 자료의 형태로 변환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정보이용행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보급 및 발달을 통해 정보기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안라희, 이범준 2002), 개인의 정보로의 접근이 더욱 간편해진 것이다. 이제 이용자들은 업무, 여가, 건강, 경제 등의 생활정보들을 이용하기 위해 웹이라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정보자원을 찾고 있으며(Dinet, Chevalier and Tricot 2012), 정보기와 자료의 형태, 그리고 사용성과 편의성 등에 중점을 맞춰 정보이용의 방법들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1940년대 초기 이용자 연구를 시작으로 정보이용행태에 관한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Wilson(2000)은 정보이용행태를 단순히 수동적인 이용을 벗어나 능동적이며,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행위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이것은 이용자가 정보이용을 할 때 요구가 발생하는 맥락을 이해하고, 기존 지식과 새롭게 얻게 된 지식 간에 비교를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의 총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이용행태는 개인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포함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말하고 있다(김성은, 이지연 2013).

또 McKenzie(2003)는 Savolainen(1995)의 ELIS⁷⁾에 대한 개념을 기본으로 하여 일상적 정보추구행태를 모형화 하였는데, 이것은 정보를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생활 가운데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오늘날 정보이용은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연구나 개인의 학업을 위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씨나 교통상황 등의 일상생활영역으로 확장되었다. 따라서 이용자가 어떤 정보를 어떠한 기기와 방법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지, 이용에 있어 어떤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등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는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해 시간마다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있다. 이들은 정보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며 정보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고령층은 연령이나 학력수준 등에 따라 정보이용

7)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수준이 다르며, 선호하는 정보의 종류도 다르다(김희섭, 김판수, 이미숙 2014; 노용환, 김정연, 김원중 2009).

그렇다면 고령층과 청년층 사이에 있는 중·장년층 세대는 어떠한가? 이들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고령층에 속한 대부분의 노인들보다는 나은 교육수준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나 환경에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고령층이 그렇듯 이들 세대 역시 현재 젊은층과는 어느 정도 격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부분은 정보 기기와 정보 이용의 수준, 그리고 이용하고 있는 정보의 종류, 품질 등에서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고령층처럼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배움으로서 발생하는 편익의 가치가 시간과 노력 등이 포함된 학습비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배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다(노용환 2009). 또한 오세나와 이지연(2012)에 따르면, 이전의 정보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과 소비 사이에서 시간적인 간극이 있었던 반면, 스마트 폰 환경에서는 정보의 생산 시점에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등의 새로운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중·장년층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모바일의 가장 큰 특징인 이동성과 인터넷과 같은 네트워크에 상시 접속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이용자들이 시간과 공간, 행동의 제약에서도 어느 정도 자유로운 상태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해 중·장년층의 모바일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늘어난 수명, 자기만족, 자가 부양

(Self-care)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특히, 노화과정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강, 참여, 안전의 영역에서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적 노화(Active aging)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WHO 2002), 대부분의 중·장년층 또한 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 이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중·장년층은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한 정보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큰 거부감은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모바일 정보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연구 즉, 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정보이용태에 관한 연구들이 다각도로 필요하다.

3. 연구 설계

3.1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조만간 고령층으로의 유입될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지역은 우리나라의 전국 단위로 대도시 및 중·소도시와 군으로 한정하였다.

둘째, 설문조사는 중·장년층의 문항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되었으며,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을 통해 이해를 도왔다. 또한 수

집된 자료는 향후 SPSS 통계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코딩하여 데이터화 했다.

셋째, 설문대상자인 중·장년층의 개략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 성별, (2) 학력, (3) 소득수준, (4) 건강상태, (5) 거주지역, 그리고 (6) 직업 유무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넷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는 중·장년층의 직접적인 모바일 정보이용과 관련된 행동 및 인식들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사용 중인 (1)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 (2) 이용시간, (3) 이용수준, (4) 모바일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5)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의 5가지 항목으로 정의하였다.

다섯째, 수집된 데이터는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정 및 상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3.2 연구 대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은 향후 고령층으로 유입될 세대를 고려하여 50세부터 64세까지의 중·장년층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조사 지역 및 기관 선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쳐 진행되었다. 먼저, 대상의 거주 지역별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한정하였다. 그 다음 전국단위 조사를 위해 각 시·군별 홈페이지 방문과 전화 조사를 통해 각 도시, 군 등을 선정한 뒤, 선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공공

기관이나 기타단체들을 대상으로 담당자의 협조를 득한 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리고 온라인설문 대상 선정은 선정 기관 중에서 오프라인 설문 참여하지 못한 인원과 홈페이지에 설문참여의사를 밝힌 인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오프라인 설문과 문항은 동일하다.

3.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중·장년층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사용된 설문지는 문헌연구 및 이전 설문조사 경험들을 바탕으로 「경북대학교 정보격차연구사업단」에서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본 설문에서는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직업 유무의 6가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와 관련된 지표를 대표적으로 모바일을 통해 이용 중인 정보콘텐츠의 유형, 이용시간, 이용수준,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의 5가지로 나누었다. 모바일을 통해 이용 중인 정보콘텐츠는 생활, 복지, 문화예술, 뉴스, 교육, 경제, 여가 정보와 같이 7문항으로 세분하였고,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은 각각 1문항, 모바일 유용성에 대한 인식 8문항,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는 2문항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8) 중·장년은 사전적 의미로는 청년과 노년의 중간에 속한 집단으로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40-60세 사이의 나이의 사람으로 간주한다. 또한 심리학 혹은 정신의학자들은 45-65세로 정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50-64세까지의 연령을 중·장년으로 일컫는다.

〈표 1〉 설문지 문항구성

연구변수	항 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변수	연령	만 50세 ~ 64세	1
	성별	남, 여	1
	학력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1
	소득수준 (월)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5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1
	거주지역	특별시, 광역시, 시, 군	1
	건강상태	상, 중, 하	1
	직업유무	있다, 없다	1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모바일 정보 콘텐츠 활용유형		7
	모바일 이용시간		1
	모바일 이용수준		1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2
	모바일 유용성 및 편의성		8

“모바일 사용유무” 항목에 대해 ‘사용하지 않음’에 응답할 경우는 이후 관련 문항은 건너뛸 수 있도록 고안하였으며, “모바일 사용수준”에서는 모바일 기기 보유와는 별도로 이용자의 이용능력 수준만을 고려하였다.

“모바일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중·장년층이 평소에 모바일 기기와 정보가 얼마나 삶에 유용한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인간관계, 자기개발 및 능력향상, 업무처리, 필요한 정보획득의 5가지 문항과 또 모바일 사용이 응답자에게 얼마나 편한지를 파악하기 위한, 사용방법 이해, 필요한 관련 기술 습득, 필요한 지식습득에 있어서의 편의성을 알아보는 3가지 문항을 통해 각각 조사하였다.

또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에서는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데 관한 의사 및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재이용하겠느냐는 여부를 묻는 2가지 문항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설문지의 전체적인 항목과

그 세부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3.4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 수집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진행에 있어, 중·장년층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학력수준과 문화경험, 문항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각 문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운 설문대상자에 한해서는 면대면으로 부가적인 설명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제외).

설문조사는 주 연구대상인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14년 7월 2일부터 8월 16일까지 전국단위로 실시하였으며,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서 15일간 실시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93명 중 결측값을 가진 응답인원 2명을 제외한 191명을 최종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다시 세부항목들로 코딩하여 SPSS Ver. 21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 결과

이 70명(36.6%)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건강하다고 답변하였다.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111명(58.1%), 여성이 80명(41.9%)이며, 전체 응답자 중 50-54세의 연령대에 분포한 인원이 83명(43.5%)으로 가장 많았다. 최종학력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9명(4.7%)으로 가장 적었고, 대학교 졸업 이상이 94명(49.2%)으로 가장 많았다.

거주 지역의 경우 광역시가 70명(3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 29명(15.2%)으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응답이 되었다.

소득상태의 경우 월 평균 200만원 이상의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 중 104명(54.5%)으로 가장 많았다. 직업의 유무를 확인해본 결과 146명(76.4%)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의 경우에는 '보통(중)'을 택한 응답자가 111명(58.1%)으로 가장 높았으며, '상'

4.2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 분석

중·장년층의 일반적인 모바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모바일 유용성에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 "인간관계에 도움이 된다", "자기 개발 및 능력향상에 도움이 된다",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필요한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다"의 5가지 항목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응답자는 각각 95명(49.7%), 81명(42.4%), 77명(40.3%), 81명(42.4%), 94명(49.2%)으로 가장 높았으며, 편의성에서는 사용방법 이해도와 기술 습득에서는 각각 89명(46.6%)과 90명(47.1%)으로 '보통'이다가 가장 높았던 반면, 정보획득에서는 '그렇다'가 77명(40.3%)으로 가장 많았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연령	성별		최종학력				거주 지역			
	남	여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고졸 이하	대졸 이상	특별시	광역시	시	군
50-54세	51	32	1	4	24	54	44	7	21	11
55-59세	42	27	3	17	18	31	4	40	15	10
60-64세	18	21	5	10	15	9	1	23	7	8

연령	소득상태					건강상태			직업유무	
	50미만	100미만	150미만	200미만	200이상	하	중	상	유	무
50-54세	6	9	6	8	54	2	48	33	75	8
55-59세	9	10	7	2	41	5	42	22	52	17
60-64세	5	10	6	9	9	3	21	15	19	20

〈표 3〉 모바일의 유용성 및 편의성에 대한 인식

(단위: 명)

	항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모바일 유용성	일상생활	6	10	48	95	32
	인간관계	5	19	66	81	20
	자기개발 및 능력향상	6	18	69	77	21
	업무처리	6	16	67	81	21
	정보획득	6	6	54	94	31
모바일 편의성	사용방법 이해도	8	33	89	51	10
	기술습득	8	40	90	43	10
	정보획득	9	13	71	77	21

4.3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분석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142명(74.4%)이 모바일 정보나 기기의 지속적인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으며, 모바일 기기나 정보를 다시 구매하거나 이용할 의사를 가진 응답자 또한 전체 응답자 중 135명(70.7%)으로 나타났다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수치).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중·장년층은 전반적으로 모바일 기기 및 정보 이용에 있어 긍정적인 인식을 가

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4 성별에 따른 모바일 정보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은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표 5〉와 같이 성별과 모바일 이용시간 및 이용수준을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분석했다.

4.4.1 성별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중·장년층의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

〈표 4〉 모바일 이용 및 재이용 여부

항목	응답	단위(명)	퍼센트
지속적인 모바일 이용의사	전혀 아니다	10	5.2%
	아니다	10	5.2%
	보통이다	29	15.2%
	그렇다	104	54.5%
	매우 그렇다	38	19.9%
모바일 재이용 의사	전혀 아니다	9	4.7%
	아니다	12	6.3%
	보통이다	35	18.3%
	그렇다	100	52.4%
	매우 그렇다	35	18.3%

〈표 5〉 성별에 따른 모바일 사용시간에 대한 차이분석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 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모바일 이용 시간	등분산이 가정됨	2.020	.157	-.239	189	.812	-.046	.193	-.427	.335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35	159.1	.815	-.046	.196	-.434	.342
모바일 이용 수준	등분산이 가정됨	.380	.538	.618	189	.538	.093	.151	-.204	.3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628	179.502	.531	.093	.148	-.200	.386

정을 실시한 결과, F값은 2.02이며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157이므로 등분산이 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은 -.239 그리고 유의확률은 .157로 유의수준 .05에서 중·장년층 남·여 간에 모바일 사용시간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4.2 성별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분석

성별에 따라 모바일 이용수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F값은 .380이며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538로 등분산이 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은 .618 그리고 유의확률은 .538로 유의수준 .05에서 중·장년층 남·여 간에 모바일 이용수준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유의수준 .1에서 유의함,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함, ***유의수준 .01에서 유의함(이하 모든 표에서 적용됨)

4.5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최종학력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최종학력과 모바일 이용시간 및 이용수준에서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했다(〈표 6〉, 〈표 7〉 참조).

4.5.1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분석

〈표 6〉에서처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875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최종학력별 모바일 이용수준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량은 5.442, 유의확률은 .160로 나타나 관련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가설의 기각에 의한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어느 집단 간에도 모바일 이용수준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5.2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표 7〉과 같이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결

〈표 6〉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수준 차이

다중비교 [Levene 유의확률=.875, 분산분석 F=5.442, 유의확률=.160]				
최종학력(I)	최종학력(J)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262	.386	.928
	고졸 이하	-.216	.366	.950
	대졸이상	-.533	.356	.525
중졸 이하	초등졸 이하	.262	.386	.928
	고졸 이하	.045	.228	.998
	대졸 이상	-.271	.211	.649
고졸 이하	초등졸 이하	.216	.366	.950
	중졸 이하	-.045	.228	.998
	대졸 이상	-.317	.171	.334
대졸 이상	초등졸 이하	.533	.356	.525
	중졸 이하	.271	.211	.649
	고졸 이하	.317	.171	.334

〈표 7〉 최종학력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차이

다중비교 [Levene 유의확률=.248, 분산분석 F=1.737, 유의확률=.161]				
최종학력(I)	최종학력(J)	평균차	표준오차	유의확률
초등졸 이하	중졸 이하	.204	.494	.982
	고졸 이하	.018	.468	1.000
	대졸이상	-.337	.455	.908
중졸 이하	초등졸 이하	-.204	.494	.982
	고졸 이하	-.187	.291	.938
	대졸 이상	-.541	.270	.264
고졸 이하	초등졸 이하	-.018	.468	1.000
	중졸 이하	.187	.291	.938
	대졸 이상	-.354	.219	.457
대졸 이상	초등졸 이하	.337	.455	.908
	중졸 이하	.541	.270	.264
	고졸 이하	.354	.219	.457

과,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248로 영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중·장년층의 최종학력별 모바일 이용시간의 평균차이에 대한 F통계량은 1.737, 유의확률은 .161로 나타나 관련 항목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가설의 기각에 의한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최종학력에 따른 어느 집단 간에도 모바일 이용시간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6 소득상태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소득상태에 따라 모바일 정보 이용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 대한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바일 이용수준에서의 F통계량은 1.410, 유의확률 .232로 유의수준 .05

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바일 이용시간에서도 F통계량 .954, 유의확률 .434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4.7 거주 지역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분석

중·장년층의 거주 지역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에서 Levene의 유의확률이 .153이며, F는 2.038, 유의확률 .589로 나타났으며, 영가설 기각에 의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거주지역과 모바일 이용시간 간에 차이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에서 Levene의 유의확률이 .450이며, F는 5.794, 유의확률 .341로 나타났으며, 영가설 기각에 의해 사후비교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떤 항목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4.8 건강상태에 따른 모바일 이용행태

중·장년층의 건강상태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동질성 검사, 분산분석, 사후비교분석의 모든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9 직업의 유무에 따른 모바일 이용시간 분석

중·장년층의 직업의 유무에 따라 모바일 이용행태시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직업의 유무와 모

바일 이용시간 간에서는 F값이 3.878, Levene의 등분산 검정에서 유의확률이 .050으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 통계량은 -.534 그리고 유의확률은 .595로 유의수준 .05에서 중·장년층의 직업 유무 간 모바일 이용시간의 평균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업의 유무와 모바일 이용수준 간에서는 F값이 .860, 유의확률이 .355로 등분산이 가정되었으며, 평균의 동질성에 대한 t검정에서 t 통계량은 .062, 유의확률 950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생략).

4.10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에 대한 교차분석

중·장년층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했다(〈표 8〉 참조).

연령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장년층의 연령을 다시 3그룹(50-54세, 55-59세, 60-64세)으로 세분하였을 경우 이들 그룹 간에는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이 전체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에서도 모든 영역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중·장년층은 교육수준에 따라 서로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

〈표 8〉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 교차분석

인구통계학적 변수 모바일 정보	성별 (2그룹)	연령 (3그룹)	최종학력 (4그룹)	소득상태 (5그룹)	건강상태 (3그룹)	거주 지역 (4그룹)	직업유무 (2그룹)
생활	.295 (.587)	4.800 (.091*)	11.266 (.010**)	3.755 (.440)	3.853 (.146)	7.766 (.051*)	1.351 (.245)
복지	.091 (.763)	8.525 (.014**)	10.179 (.017**)	4.968 (.291)	2.068 (.356)	5.903 (.116)	3.006 (.083*)
문화예술	.605 (.437)	9.631 (.008***)	8.414 (.038**)	4.409 (.353)	3.427 (.180)	11.364 (.010**)	2.342 (.126)
뉴스	.262 (.609)	6.488 (.039**)	9.911 (.019**)	7.930 (.094*)	3.776 (.151)	5.643 (.130)	3.148 (.076*)
교육	2.065 (.151)	12.980 (.002***)	9.045 (.029**)	4.327 (.364)	2.418 (.299)	6.706 (.082*)	2.067 (.151)
경제	.542 (.462)	5.224 (.073*)	7.051 (.070*)	4.860 (.302)	1.447 (.485)	3.963 (.266)	3.208 (.073*)
여가	.718 (.397)	11.211 (.004***)	8.428 (.038**)	6.826 (.145)	3.642 (.162)	9.371 (.025**)	6.528 (.011**)

* 표 안의 값은 카이제곱값(유의확률)

츠의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뉴스' 정보콘텐츠의 이용에서 유의확률이 .094로 유의수준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그들이 이용하는 모바일 뉴스콘텐츠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하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생활정보', '문화예술정보', '교육정보', '여가정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정보', '뉴스', '경제정보'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의 유무에 따라서는 '복지정보', '뉴스', '경제정보', '여가정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직업을 가진 중·장년층의 관심사가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정보콘텐츠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은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별과 건강상태에서는 어떠한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유형에서도 그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모바일 정보이용행태를 성별,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역, 건강상태, 직업의 유무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국 각 지역 특히,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 거주하는 50세 이상~64세 이하의 중·장년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통하여 데이터들을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193명 중 결측값을 제외한 191명의 데이터로 SPSS Ver. 21를 통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장년층은 학력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는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모바일 정보콘텐츠의 유형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중·장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뉴스'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장년층은 직업유무에 따라 모바일 이용시간과 이용수준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복지, 뉴스, 경제, 여가의 모바일 콘텐츠 활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넷째, 중·장년층은 성별, 거주지역, 그리고 건강상태는 모바일 정보이용행태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중·장년층은 가까운 미래에 있을 은퇴와 그 이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는 연령대이다. 한국일보(the Korea Times) 2015년 3월 11일자 뉴스를 보면, 미국의 55세 이상의 세대주 65%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수입의 40% 이상 빚을 갚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은퇴를 앞둔 연령대의 노동 참여율은 64.3%이며 은퇴를 하고 싶어도 부채와 은퇴 후 자금부족을 이유로 지속적인 노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은퇴를 앞둔 세대들도 쏟아져 나오는 각종 뉴스 기사와 상황들을 종합해볼 때 이와 마찬가지로 지인 상황이다. 한국일보의 2014년 9월 24일자 뉴스를 통해 은퇴를 앞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지속적으로 노동을 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관심사는 당연히 생활 및 사회전반에 걸쳐있으며,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다양한 정보이용을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모바일 이용률의 증가는 전 세대를 걸쳐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 것과 같이 모바일 기기의 사용에 비해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서의 차이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들이 필요하며, 특히 다가올 고령층 세대들을 위한 예방차원에서 연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데이터의 수적 한계, 그리고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망라하지 못하고 몇 가지 항목에 국한시킨 한계로 인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다소 부족함 있다. 하지만 관련 선행 연구들이 주로 고령층이나 젊은 세대들에 맞춰 이루어져왔고, 앞으로 고령층에 편입될 중·장년층 세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이 분야 연구의 다양화와 앞으로 연령층간의 정보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관련 정책 및 연구를 진행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차후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좀 더 많은 수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모바일 정보콘텐츠 활용에 있어서 중·장년층의 정보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정보이용행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원인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예방하며, 나아가 이들이 양질의 맞춤형 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 스스로가 정보활동의 주체가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강월석, 김명숙, 고재욱. 2013. 스마트폰 정보 활용과 이용성도가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3(1): 199-214.
- [2] 김성은, 이지연. 2013. 청소년의 가상 정보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 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155-173.
- [3] 김성진. 2013. 대학도서관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와 이용 분석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4(2): 205-230.
- [4] 김재생. 2013. 모바일 컨버전스 및 모바일 커머스. 『한국콘텐츠학회지』, 11(1): 27-34.
- [5] 김재훈, 김형철. 2009. 모바일 기기를 위한 정보검색 시스템.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지』, 33(4): 569-577.
- [6] 김희섭, 김관수, 이미숙. 2014. 고령층의 인터넷 활용 및 장애 요인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289-305.
- [7] 김희섭, 이미숙, 강보라. 2014. 대학생층과 비교를 통한 고령층의 모바일기반 정보행위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5(1): 249-270.
- [8] 노용환. 2009. 정보속으로: 특집: 정보격차: 고령화 사회의 정보격차 문제. 『지역정보화』, 56: 12.
- [9] 노용환, 김정연, 김원중. 2009. 컴퓨터와 인터넷 채택 및 이용의 결정요인 분석: 고령화와 정보격차에 대한 시사점. 『e-비즈니스연구』, 10(4): 319-350.
- [10] 손정우, 한용진, 송현제, 박성배, 이상조. 2013. 모바일 사용자의 개인 및 소셜 정보 추정. 『정보처리학회논문지』, 2(9): 603-614.
- [11] 안라희, 이범준. 2002. 정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전자도서관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9: 209-214.
- [12] 오세나, 이지연. 2012.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정보탐색행태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9(1): 191-209.
- [13] 은퇴 앞둔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에 초점, 불안감 막기엔. 2014. 『한국일보』. 9월 24일.
- [14] 은퇴하고 싶어도 돈 없어서 계속 일한다. 2015. 『한국일보: the Korea Times』. 3월 11일.
- [15] 이원태,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 오주현. 2011.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정보격차 해소 및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16] 장보성, 남영준. 2014. 도서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8(2): 25-44.
- [17] 정영금, 윤소영. 2014. 베이비부머 세대의 여가활동 특성과 여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8(3): 61-77.

- [18] 정중기. 2011.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국내의 대학도서관의 모바일 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1): 171-191.
- [19] 통계청. 2013. 『2013 고령자 통계』. [online] [cited 2015. 3. 7.] <<http://kostat.go.kr/>>
- [20] 한국 갤럽 홈페이지. [online] [cited 2015. 3. 6.] <<http://www.fnnews.-com/news/201408271405499203>>
- [21] 한국정보화진흥원. 2009. 『고령층의 정보문화 활성화방안: 사회참여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행정자치부, 2009-02.
- [22] Dinet, J., Chevalier, A. and Tricot, A. 2012. "Information search activity: An overview." *Revue europeenne de psychologie appliquee*, 62(2): 49-62.
- [23] Eurostat. [online] [cited 2015. 2. 2.] <http://appsso.eurosta-t.ec.europa.eu/nui/submitViewTableAction.do?sessionId=Lzu69BScwQcgfm7r7mKu1Fs5-0E3_YREDLIGYUpCCu27SU4v4hyJ!-152107322>
- [24] Flurry. [online] [cited 2015. 1. 22.] <<http://www.flurry.com/blog/flurry-insights>>
- [25] Karen, C. et al. 2007. "Mobile information access: A study of emerging search behavior on the mobile Internet." *ACM Transactions on the Web (TWEB)*, 1(1): article no. 4.
- [26] McKenzie, P. J. 2003. "A model of information practices in accounts of everyday-life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59(1): 19-40.
- [27] Moretz, J. and Surti, C. 2014. "Mobile Convergence and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for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Technology Innovation Management Review*, 4(6): 14.
- [28] Muller, H., Gove, J. L. and Webb, J. S. 2012. "Understanding tablet use: a multi-method exploration." *Proceedings of the 14th Conference on Human-Computer Interaction with Mobile Devices and Services*, 1-10.
- [29] Nylander, S., Lundquist, T. and Brannstrom, A. 2009. "At home and with computer access: why and where people use cell phones to access the internet." *Proceedings of the 27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uman Factors in Computing Systems*, 1639-1642.
- [30] Ray, P. 2014. "Mobile Market Research, 2014." *International journal of market research*, 56(6): 705-707.
- [31] Savolainen, R. 1995.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Approaching information seeking in the context of way of life."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7(3): 259-294.
- [32] WHO. 2002. "Active Aging: A Policy Framework."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2.
- [33] Wilson, T. D. 2000. "Human information behavior." *Informing Science*, 3(2): 49-55.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Wol-Suk, Kim, Myeong-Suk and Ko, Jea-Ug. 2013. "Effects of the Smartphone Information Use and Performance on Life Satisfaction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3(1): 199-214.
- [2] Kim, Sung-Eun and Lee, Jee-Yeon. 2013. "Research on Virtual Information Grounds and the Information Use Behavior of Korean Youth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155-173.
- [3] Kim, Sung-Jin. 2013. "User Needs and Uses of Mobile Services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4(2): 205-230.
- [4] Kim, Jae-saeng. 2013. "Mobile convergence and Mobile Commerc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11(1): 27-34.
- [5] Kim, Jae-Hoon and Kim, Hyung-Chul. 2009.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for Mobile Device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Marine Engineering*, 33(4): 569-577.
- [6] Kim, Heesop, Kim, Pansoo and Lee, Misook. 2014. "An Analysis on the Internet Uses and Barriers of the Older Adul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2): 289-305.
- [7] Kim, Heesop, Lee, Misook and Kang, Bora. 2014. "An Analysis on the Mobile-based Information Behavior of the Older Adults with Comparison of th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1): 249-270.
- [8] Noh, Yong-Hwan. 2009. "in Information: Digital Devide : Digital Divide Problems of Aging Society." *Local Information Magazine*, 56: 12.
- [9] Noh, Yong-Hwan, Kim, Jung-Un and Kim, Won-Jung. 2009. "Aging Society and Digital Divide: Analysis of Determinant Factor for Digital Divide." *The e-Business Studies*, 10(4): 319-350.
- [10] Son, Jeong-Woo, Han, Yong-Jin, Song, Hyun-Je, Park, Seong-Bae and Lee, Sang-Jo. 2013. "Estimating Personal and Social Information for Mobile User." *The KIPS Transactions*, 2(9): 603-614.
- [11] Ann, La-Hee and Lee, Beom-Joon. 2002. "A Study on The Braille Library Service by The Chalenge of Information Environment." *Proceedings of the 9th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02, 9: 209-214.
- [12] Oh, Sena and Lee, Jee-Yeon. 2012. "A Study on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of Smart

- Phone User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9(1): 191-209.
- [13] “Focus on baby-boom generation jobs before retiring.” 2014, *Korea Times*, September 24.
- [14] “keep working.” 2015 *the Korea Times*, March 11.
- [15] Lee, Won-Tae, Hwang, Yong-Suk, Lee, Hyun-Joo, Park, Nam-Soo and Oh, Joo-Hyun. 2011. “A Study on Improving Media Literacy and Reducing the Digital Divide and in Digital Convergenc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 [16] Jang, Bo-Seong and Nam, Young-Jun. 2014. “Evaluation of the Accessibility of Library Mobile App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8(2): 25-44.
- [17] Jeong, Young-Keum and Yoon, So-Young. 2014. “Impact of leisure activity on the leisure economy of Korean baby-boomers.” *Korea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8(3): 61-77.
- [18] Jung, Jong-Kee. 2011. “A Study on Mobile Services Based on Smartphone Application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2(1): 171-191.
- [19] Statistics Korea. 2013. “2013 the Aged Statistics.” [online] [cited 2015. 3. 7.] <<http://kostat.go.kr/>>
- [20] Korea Gallup. [online] [cited 2015. 3. 6.] <<http://www.fnnews.co-m/news/201408271405499203>>
- [21]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9. *Strategies for Improving Information Culture of the Age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